





강을 살리자

동아시아 게임

答 감독 김승훈

🕑 재생시간 7분 42초

● 관리번호 CEN0004853

우리는 정보 가족

감독 김금동

재생시간 7분 1초

● 관리번호 CEN0006537

쓰레기 종량제 그후…

감독 박종철

재생시간 5분 52초

● 관리번호 CEN0005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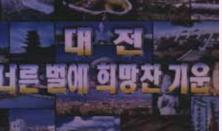
櫡 감독 박순구

🕑 재생시간 21분 13초

🤍 관리번호 CEN0005361









감독 이창호

재생시간 16분 16초

● 관리번호 CEN0005913

광주 비엔날레

감독 김준연

'95 KWANGJU BIENNALE

재생시간 29분 38초

● 관리번호 CEN0004922~ CEN0004923



영화례설

▶ 1950년대	〈자유의 소리〉(1957)	044
	〈교통안전〉(1958)	048
	〈우리의 국회〉(1959)	052
~	(-121-1) ()	
1960년대	〈피어린 600리〉(1962)	056
	⟨112⟩(1963)	060
	〈배격해야 할 풍조〉(1965)	064
	〈나라살림 내집살림〉(1967)	068
▶ 1970년대	〈산업시리즈(시멘트공업)〉(1970)	072
	〈보람찬 내일〉(1972)	076
	〈쌀〉(1975)	080
	〈한국의 종교〉(1978)	084
▶ 1980년대	〈인플레를 잡는 길〉(1982)	088
	〈씨름〉(1984)	094
	〈북괴 금강산댐 건설〉(1987)	098
	〈지구촌의 축제〉(1988)	102
▶ 1990년대	〈우리는 정보 가족〉(1991)	106
	〈쓰레기 종량제 그 후···〉(1995)	110
	〈다시 뛰자! 코리아!〉(1997)	114

자유의 스리



OR 찍고 영화보기



1950년대 라디오 방송의 제작 방식 및 송 출 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주로 남성 아나운 서의 해설과 각종 현장음을 활용하여 상세 히 전달한다. 이를 통해, 당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었고 각 프 로그램의 분위기도 방송 종사자나 일반 청 취자의 적극적인 제작 참여에 힘입어 활기 차고 역동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감독 🚝 김영권

생산기관 🚢

공보실 선전국 영화과

044

관리번호 🔍 CEN0002064

재생시간 🕑 10분 34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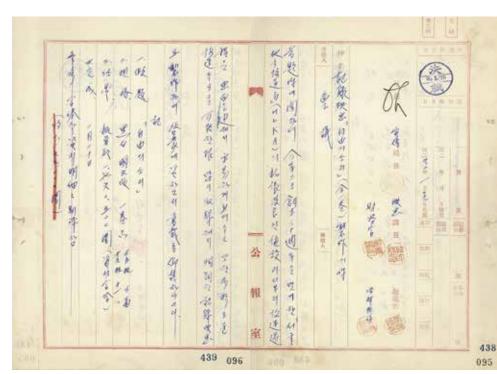
서울중앙방송국(KBS, 호출부호: HLKA)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기획·제작된 이 작품은 1960 년대까지도 대표적인 전파 대중 매체로 자리하던 라디오 방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중앙방 송국의 '자유의 소리'를 통해 소개한다.

화면에는 가수들의 합창, 성우들의 드라마 연기, 아나운서들의 뉴스 보도, 음악인들의 국악 연주뿐 아니라 일반인이 참여하는 '스무고개'와 '노래자랑' 등 현장 프로그램의 제작 광경이 다채 롭게 전시된다. 여기에 방송국 관계자들의 편성 회의, 뉴스 방송의 원고 작성 절차, 공개 방송의 요일 및 장소, 녹음 음성의 송신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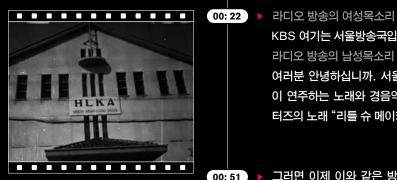
이와 같이. 영화 〈자유의 소리〉는 1950년 대 라디오 방송의 제작 방식 및 송출 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주로 남성 아나운서의 해설과 각종 현장음을 활용하여 상세히 전달한다. 그리고 이 를 통해 당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 양한 편이었고 각 프로그램의 분위기도 방송 종 사자나 일반 청취자의 적극적인 제작 참여에 힘

입어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자유의 소리〉는 동시기 방송 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을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영상 사료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띤 다고 하겠다. 참고로. 1961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설립된 후에는 이곳에서 국립영화제작소를 소개 하고 홍보하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가 간헐적 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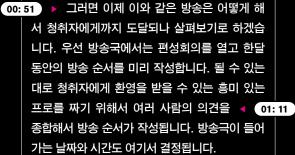


기록영화 자유의소리 전1권 제작의 건 BA0791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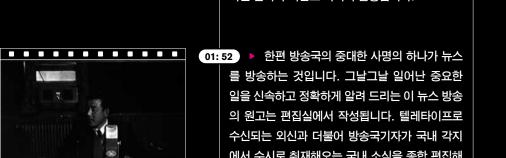


.

KBS 여기는 서울방송국입니다. HLKA 라디오 방송의 남성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방송 경음악단 이 연주하는 노래와 경음악, 먼저 현 시스 터즈의 노래 "리틀 슈 메이커"









에서 수시로 취재해오는 국내 소식을 종합 편집해 서 하루 열 번씩 방송되는 뉴스의 원고가 마련됩니 다. 조정기사의 신호와 더불어 방송개시 등 표시 가 들어오면 아나운서는 뉴스방송을 시작합니다. 국내,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진상을 사 실 그대로 방송하는 자유의 소리 뉴스는 국민들에 게 내외 정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줄 뿐 아 니라 진실한 소식에 굶주리고 있는 북한에도 전달 됨은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방송되는 것입니다.

청취자의 연령과 취미가 광범위한 관계상, ◀ 03:04 방송프로도 또한 이에 호응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 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속적 향기 높은 국악은 중 요한 연예 프로의 하나입니다.



045



문화관에서 인기 있는 퀴즈 프로의 하나인 '스무고 개'의 공개 녹음이 있습니다. 장내에 가득 찬 방청 객들에게 문제가 제시되면 따로 마련된 비밀실에 서는 여자 아나운서가 청취자들에게 문제를 알려 줍니다.

> 그러면 무대에서는 사회자와 박사들 사이에 흥미 있는 문답이 오고 가고 방청객들의 웃음소리와 더 불어 모든 것이 다음날의 방송을 위해 현지에서 녹 음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무슨 노래 오늘 해주시겠습니까?"

한편 카톨릭 문화관에서는 이미 '스무고 ◀ 06:03 개'가 끝나고 역시 HLKA의 인기 프로의 하나인 '노래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 그러면은 오늘 제일 먼저 노래해 주실 분 이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어서 나와 주시 지요. 이번엔 군인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체격이 좋은 분이었습 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서 나오십시오. 무슨 노래 오늘 해주시겠 습니까?

군 인 "마음의 자유천지".

사회자 "마음의 자유천지"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날 서울의 밤거리는 퍽이나 번화해졌으며 화려하 게 조명된 수많은 라디오 가게에서는 끊임없이 명 랑한 방송이 우렁차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임원식 씨의 지휘로 서울방송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은 양악 팬들에게 없지 못할 프로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유의 소리, HLKA 서울방송은 오늘 저녁에도 전세계를 향해 깊어가는 밤하늘에 무한히 퍼져 나아가고 있 습니다.





교통인전



OR 찍고 영화보기



교통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영상 기록이다. 속도위반과 불법추월 금지, 버스 정원제 실시, 무질서한 횡단과 신호위반 금 지. 일단정지 이행, 보도 위 방해물 제거, 자 전거, 우마차, 손수레는 지정된 뒷길 이용, 좌측통행 엄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감독 🚝 양한석

생산기관

공보실 선전국 영화과

관리번호 📵 CEN0002076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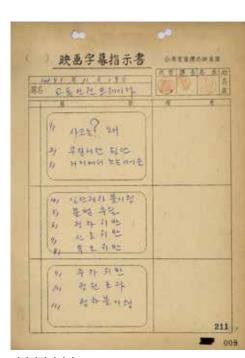
재생시간 🕑 3분 12초

이 영화는 3분 10여 초의 비교적 짧은 러닝 타임 에도 교통상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준 수해야 할 기본 도덕과 규칙 등을 다양하게 제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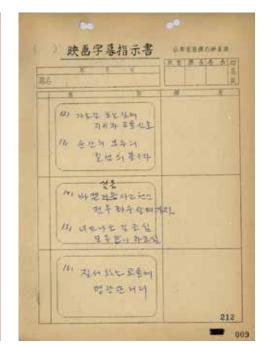
화면에는 차례로 '직히자 교통도덕'. '속도 위반', '불법추월', '정원초과', '무질서한 횡단' '정차위반'. '신호위반', '일단정지 불이행', 보도 상의 방해물' 등의 자막과 더불어, 이에 해당하는 실제 도로 상황이 담겼거나 인위적으로 연출된 장면들이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 남성 아나운서 의 내레이션과 경쾌한 음악, 자극적인 음향이 더 해짐으로써 설명의 구체성과 전달 효과가 배가된 다. 그러면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자전거·우마차·인력거를 다루는 사람들도 계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다만, 주의 사항들의 배치 가 논지정연하지 않다거나 연출 상황이 부자연스 럽다는 점에서는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 러나 이마저도 시대가 반영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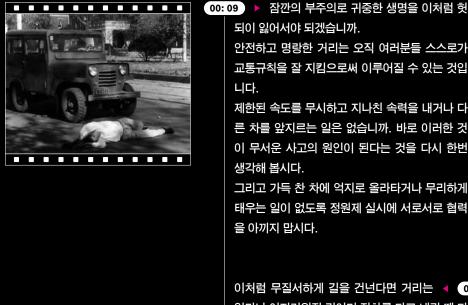
이렇듯, 이 작품은 도로 사정과 교통 표시 물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던 1950년 대 당시 교통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 계몽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영화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이듬해 14분 30여 초 분량의 문화영화 〈십자로의 교통순경〉이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주

참고로, 1955년 11월 8일 대통령령 제 1106호로 '도로표지규정'이 공포된 바 있었으며, 기존의 '조선도로령'이 폐지되는 대신 '도로법' (1961.12.27)과 '도로교통법'(1961.12.31)이 제정된 것은 5·16이 일어난 1961년 12월의 일 이었다



영화자막지시서 BA0791653





일단 정지불이행

"운전수 여러분들은 신호를

이행하지 않아서 서로 부딪친

위반했거나 일단정지를

일은 없습니까?"

이처럼 무질서하게 길을 건넌다면 거리는 ◀ 01:02 얼마나 어지러워질 것이며 전차를 타고 내릴 때 다 른 차들이 내왕한다면 그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

안전하고 명랑한 거리는 오직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통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

제한된 속도를 무시하고 지나친 속력을 내거나 다

른 차를 앞지르는 일은 없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

이 무서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가득 찬 차에 억지로 올라타거나 무리하게

태우는 일이 없도록 정원제 실시에 서로서로 협력

되이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을 아끼지 맙시다.

운전수 여러분들은 신호를 위반했거나 일단정지 를 이행하지 않아서 서로 부딪친 일은 없습니까.

안전과 큰길가의 번잡을 덜기 위해서 지정된 뒷길 을 이용합시다.

차량이나 간판을 보도 상에 세워놓거나 노점을 벌 여서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삼가 하도록 합 그리고 자전거, 우마차, 손 구루마 등은 자신들의

02: 35 🕨 모든 규칙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 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먼저 위한다는 미덕과 세심한 주의를 다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 고 안전하고 명랑한 거리를 만들기에 온갖 힘을 기 울여야 하겠습니다.

> 이것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 > 영화 해설







049





우리의 극회

1959



OR 찍고 영화보기



1950년대 우리나라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여주는 영상기록이다. 민의원 기구 소개와 입법 절차, 예산심의, 출신 지구 순시, 국정 감사 시행 등 민의원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 答 윤기범

____ 믘 🗀 프 생산기관 🚣 공

공보실 선전국 영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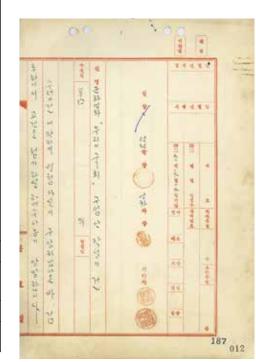
관리번호 🤍 CEN0002212

재생시간 🕑 10분 13초

영화의 제목대로, 이 작품은 제작 시점인 1959 년 당시의 국회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국 회가 걸어온 길과 그 창설의 의의, 민의원 선출 방식과 선거구 수에 이어, 1958년 5월 2일 선거 를 거쳐 6월 7일 개원한 제4대 민의원에 대해 본 격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화면을 통해 이기붕의 민의원 의장 선출, 이승만의 개원식 참석 장면 등이 나오다 가 국회 산하의 각종 위원회, 도서관, 입법의 절 차, 법률안의 처리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다. 국회의 기구 및 입법 절차에 관한 설명 과정 에서는 도표와 문자의 조합된 이미지가 활용되기 도 한다. 그리고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위원의 수와 예산 심의 등 국회의 직능, 지역구에서 외교 무대에 이르는 민의원의 폭넓은 활동상이 나열된 뒤 앞으로의 기대를 끝으로 전체의 내용이 마무 리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회〉는 1950년대 후 반 국회의 풍경과 의원들의 활동 양상을 포괄적 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 치를 지니는 문화영화라 할 만하다. 현재에는 서



〈**우리의 국회〉 구성안 작성의 건** BA0791679



〈**우리의 국회〉 구성안 작성의 건** BA0791679

울특별시의회로 사용되고 있는 국회 건물이나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민의원'이라는 용어 등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특히, 불과 1년 뒤 '4·19혁명'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바, 이승만, 이기붕, 자유당 등의 정치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1950년대의 일상적 광경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00: 36 ▶ 단기 4281년 역사적인 5·10선거로 대한 민국 국회가 창설되어 초대의장 이승만 박사의 의사봉에 의해서 주권재민의 민주헌법을 제정한 지언 11년.

그동안 우리의 국회는 민주 공화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왔으며 특히 현 이기붕 민의원 의장은 명랑한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찬란한 공적을 쌓아왔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연륜과 더불어 국민들의 4 00:55
정치적 의욕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복잡다
단한 건국초기의 제헌 국회로부터 제2대, 제3대
그리고 오늘날 제4대 민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공명선거로
서 대의정치의 정당한 방향을 지향해 왔습니다.
민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통, 직접, 비밀투표로서 선출되며 행정구역에 따라서십만의 인구에 한 명씩의 비율로 남한 전 지역에
233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인구 비율에 해당하는 의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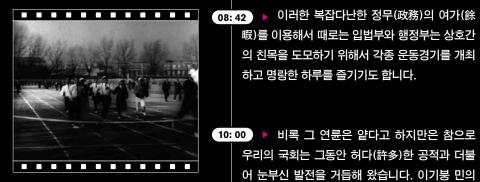
국회의장의 선거는 4년의 임기 중 2년을 격(隔)해서 이루어지며 국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결정됩니다.



01: 27 ▶ 이와 같은 명랑하고도 치열한 자유선거를 거쳐서 제4대 민의원은 단기 4291년 6월 7일에 개원되었습니다. 국회가 소집되는 즉시로 당면한 문제가 의장의 선출인데 국회의장의 선거는 4년 의 임기 중 2년을 격(隔)해서 이루어지며 국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결정됩니다.

제3대 민의원 의장이었던 이기붕 의장은 4 01:51 탁월하고 치밀한 그의 조직력으로써 제4대 민의 원 의장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차지했으며 그는 재 선의 인사로서 민주한국의 융성을 국민 앞에 약속 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 각하께서도 개원식에 몸소 임석하시어 축사를 보내셨고 민의원 일동은 소리를 합해서 국민 앞에 민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선서하는 것이었습니다.





暇)를 이용해서 때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간 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운동경기를 개최 하고 명랑한 하루를 즐기기도 합니다.

10:00 ▶ 비록 그 연륜은 얕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의 국회는 그동안 허다(許多)한 공적과 더불 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기붕 민의 원 의장의 주재 아래 올바른 민정의 반영, 명랑한 입법정치의 구현 등을 우리는 목격해 왔으며 찬란 한 의정사는 앞으로도 무궁히 빛날 것입니다.





영화 해설

의어킹 600킹



OR 찍고 영화보기



휴전선 부근의 풍경과 전쟁의 아픔을 묘사 한 영상기록이다. 6·25전쟁, 휴전협정, 서 해~동해까지 600리 휴전선 부근의 멈춰버 린 철마, 자유의 마을 대성동, 두 진영의 냉 랭한 회의가 열리는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백마고지 전적비 전경, 파로호 비석이 세워진 화천발전소 전경, 휴전선 600리 철 조망 등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다.

> 배석인 감독 🚝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 생산기관

관리번호 🔍

CEN0002551~ CEN0002552

재생시간 🕑 17분 39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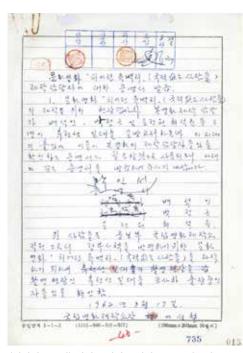
〈피어린 600리〉는 제목 그대로 휴전선(군사분계 선) 부근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현 실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17분 40여 초에 이르 는 러닝 타임 내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배 경 음악과 차분한 어조를 구사하는 남성 아나운 서의 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화는 먼저, 한반도 모형 위에 6.25전쟁 의 참상이 담긴 짧은 영상 및 과거 38선(북위 38 도선)과 현재의 휴전선 이미지를 겹쳐 보이면서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한국 이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휴전 상황이라는 불행 한 현대사를 경험해 오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나머지 대부분에서는 총 길이 248킬로미 터에 이르는 휴전선 남방의 다양한 풍경들을 통 해 전쟁기에 일어났던 일들과 현재의 분단 상황 을 펼쳐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해로 부터 '강화(조강)-김포(유도)-임진강' 일대의 서 부, '대성동-판문점-연천(설마령)' 그리고 '철원 (신철원, 구철원)-금화'로 이어지는 중부, '화천 (화천강)-양구(대우산)-진부령(향로봉)'일대의 동부를 거쳐 동해에까지 걸쳐 있는 휴전선 인근 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유기적으로 제시한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문화 영화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주제는 반공, 방첩 국방, 통일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분단을 유발시킨 북한 측에 대한 규탄 이나 내부 결속 및 국민의 자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곤 하였다.

이에. 전쟁과 분단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 직한 휴전선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자연미와 영 상미 넘치는 화면 속에 담아 시적이고도 감성적 인 메시지를 덧입힘으로써 정치색과 교훈성 대신 숭고함과 예술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어 린 600리〉의 특징적 양상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제작된 이듬해에 제2회 대종상영화제 에서 문화영화상을 수상하고 제10회 아시아영화 제와 제1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도 출품되었 다. 문화영화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하 나의 사례가 된 셈이다.



〈피어린 600리〉 촬영을 위한 휴전선 부근 출입요청 BA0791794



영화대본 BA0791794



다. 자유와 정의와 사랑을 제 생명처럼 귀중히 여 겨온 것이 이 땅 이 겨레의 전통이기에 우리의 조 상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 아름답고 평화로 운 한국의 강산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 슬픈 역사가 있고 각박한 현실이 있다. 1945년 8·15해방과 함께 국토의 허리를 가로 끊은 3.8선 그게 벌써 언제 적 일인가. 그리고 1950년 6·25 동란 풍우 속에 쓰러진 원혼들이 군민과 내외국인 아울러 무려 300만 그건 또한 언제 적 일인가. 다 시 또 1953년 7.27 휴전조인과 함께 지도 위에 태극선을 그어놓은 군사분계선 그것인들 또한 언 제 적 일인가. 이제 와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한숨도 그쳐버린 듯 그날그날의 각박한 현실 속에 남북한 십 리의 기름진 땅을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버린 휴전선은 서해에서 동해까지 위이 굴곡 자못 600리에 이르고 있다.

> 물결만이 출렁거리는 서해의 고도 끝섬에 ◀ 02:47 서 부터 민족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피어린 600리 의 휴전선은 시작된다. 서해 물결을 타고 거슬러 올라오면 이북의 연백평야와 이남의 교동과 강화 사이를 흐르는 조강. 이 강이 바로 휴전선을 이루 고 있다. 주인 없는 빈 강은 사람이 그리운 듯 소리 없이 흐르기만 하고 단지 날카로운 군인들의 시선 과 오늘도 북천을 바라보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스 피커의 소리만이 이 강을 왕래할 뿐 이따금 서부전 선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의 순찰선만이 강기슭을 타고 오르내릴 따름이다.



"철마야 너왜 입을 다물고 저 잡초 속에 쓰러져 누웠느냐 벌떡 일어나 우렁차게 울어 이 적막한 하늘을 뒤흔들어라"

057



04:43 > 우거진 잡초 속에는 녹슨 철로만이 가로누 워 잠들었고 나그네의 발길이 끊어진 역 구내에는 괴물 같은 화차덩어리가 입을 다문 채 사지를 뻗고 쓰러져 있다. 철마야 너 왜 입을 다물고 저 잡초 속 에 쓰러져 누웠느냐 벌떡 일어나 우렁차게 울어 이 적막한 하늘을 뒤흔들어라 지금 곧 북으로, 북으 로 냅다 한번 달리자꾸나.

영화 해설

고요히 생각하면 여기 이 들판에 기적소리가 울리 는 그날 그게 바로 이 민족의 소원이 풀리는 날이 리라.



05:40 ▶ 발길을 돌려 가로막힌 철조망을 따라 가면 대성동이란 조그만 마을이 남방 한계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일명 자유의 마을이라고 부르는 이 마 을에는 근 2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비록 긴 장된 완충지대의 분위기 속에서나마 그들은 자유 를 즐기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자 유와 통일이 어찌 그들에게만 귀중한 것이랴. 그 것은 온 겨레의 꿈이요 소망이며 절규며 호소일진 데 갈라진 이 땅에 상처가 아물어지고 잃어버린 북 한 땅에 자유가 깃드는 날 천진한 이 마을 학동들 의 가슴도 부풀어 오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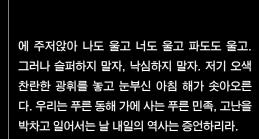
> 역전의 고지였던 백마고지 전적비가 서 있 ◀ 00:30 는 신철원을 지나 중부 전선 중에서도 유명한 격전 지였던 철의 삼각지의 일각인 구철원을 찾아간다. 그러나 어디가 철원읍이었던지 알아볼 수 없이 잡 초만이 무성한 야원 일대에는 깨진 기왓장과 무너 진 벽돌만이 뒹굴고 사람은 간 데 없는데 다람쥐만 이 줄달음치는 황량한 폐허. 완충 지대 넘어로 바 라다 뵈는 낙타고지와 백마고지 등 총소리 끊어진 역전의 고지와 고지 위에는 피와 눈물과 회한이 섞 여 피바람 되어 불어치는데 오늘도 전선의 국군들 은 통일의 내일을 맞이하려고 일각도 쉴 새 없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다.





06:50 > 물결만이 철썩이는 동해의 바다, 여기가 휴전선 600리의 마지막 철조망이 가로막힌 명파 리 폐허이다. 금단의 최종 구역, 금단의 간판. 그래 이것이 피어린 600리의 마지막 길이다. 길이 끝났 네, 더 못 간다네. 병정은 총을 들고 앞길을 막네. 마지막 쇠말뚝은 파도를 얼싸안고 바닷가 모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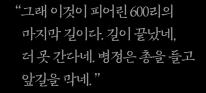




한국 정부의 자해스러운 도움으로 건립되었다.

중국스러사 에디 데 I대대는 이 기념비가 또한 그들에 못자알께지유를 사람하고 र में में दे वह चूर ले थे राज 중건증 산화한 용정스러운 से दे र र हे ने प्र के में में

간정리 비논비이다





112

= 1963 ==



OR 찍고 영화보기



범죄 신고전화 112를 홍보하는 영상기록이 다. 부주의한 문단속, 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하는 도둑, 강도, 납치 등의 범죄를 예 방하고 범죄발생 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 🚝 박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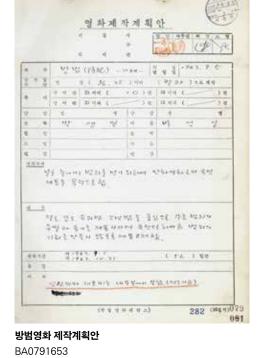
생산기관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 관리번호 🤍 CEN000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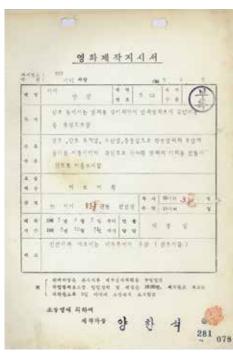
재생시간 🕑 8분 49초

1957년부터 범죄 신고용 전화번호로 사용되어 오 '112'를 제목으로 둔 이 작품은 주로 범죄 예 방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화려해 보이는 도시의 밤 이 실상은 온갖 범죄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는 경 고 뒤에 가정 절도범, 거리의 강도, 아동 유괴범 등의 유형을 제시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써 가정의 화목과 어린이를 향한 관심 을 강조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내용들이 8분 50 여 초의 컬러 애니메이션 이미지에 담겨져 있다 는 사실이다. 여기에 배경 음악 및 효과음과 여성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더해져 도시 범죄의 다양한 사례들이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제시된다. 특히 어 느 주택가 담벼락에 그려진 많은 사람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의 인물이 차례로 범죄 행위를 하는 과 정을 묘사하는 여러 장면을 통해, 누구라도 범죄 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암시한다.

한국에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최 초로 선을 보인 것은 신동헌 감독의 〈홍길동〉





방범영화 제작지시서 BA0791653

(1967)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러나 광고용 애니 메이션의 경우, 한국에서 제작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였다. 그리고 〈쥐를 잡 자〉(1959) 등을 참고하건대, 비록 1분 10여 초 로 그 시간적 길이가 짧고 내용과 형식이 단순하 였을지라도 1950년대 후반 시점에는 애니메이 션 양식의 문화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음이 확인 된다. 따라서 이로부터 수년 후에 나온 (112)는 1960년대 전반기의 사회상과 더불어 단편 애니 메이션의 변화상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볼 수 있 다



00:35 ▶ 도시의 밤은 화려한 궁전 같습니다. 그러 나 도시의 밤은 또한 온갖 범죄의 무대이기도 합니 다. 범죄의 90%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사람이란 겉으로 보아서 마음과 행실을 알기 힘듭 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선한 사람으로 보 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중에도 죄의 씨앗은 숨 어 있고 어느 틈엔가 여러분의 허술한 곳을 노려 침범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 이 사람 어딘가 수상하지 않습니 ◀ 01:29 까?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이 집은 문단 속이 안돼 있군요. 도둑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이 집은 식모만 두고 외출한 모양이지만 이것도 위험 합니다. 기어코 당했습니다. 식모에게만 집을 맡 기지 마십시다. 좀 까다로운 모양이죠. 아~ 경보 기가 달렸군요.





04:24 이렇게 늦은 밤에 이 사람은 급한 볼일이 라도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런데 어두운 골목만을 찾아드는 걸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범죄가 발생하면 이 아저씨들이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조 심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유괴범인 모양이죠? 어린이 있는 가정은 특히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06:50 > 우리는 범죄를 없애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철창만 씌워 놓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부모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어린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이것이 불안과 초조 와 반항심으로 겹쳐 결국 집을 등지게 됩니다. 집 을 등진 어린이는 반항심만 늘게 되고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방황하다 보면 결국 죄에 물들게 됩 니다. 어른들의 일거일동이 곧 어린이의 마음속에 그대로 반영됨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 해설





배격해야할증조



OR 찍고 영화보기

出四 해야할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체결 후 국민의 민 족적 주체성 확립을 촉구하는 홍보 영상기 록이다. 일본산 물품, 일본문화에 대한 숭상 을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며 일본문화 유입에 있어 주체성을 확립할 것을 홍보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 🚝 양종해

생산기관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 관리번호 🔍 CEN0002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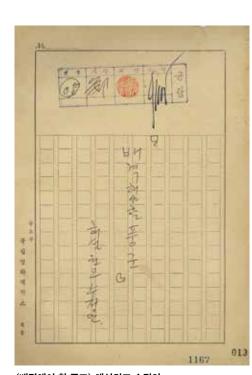
재생시간 🕑 6분 33초

영화 속 '배격'의 대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조짐을 보이던 여러 가지 사회적 '풍조'로 설정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상품에 대한 맹목적 선호, 영화·가요 등 일본 대중문화의 표절 및 모 방, 불순하고 무분별한 일본어 학습, 엔화 밀반 입과 일본 제품 밀수입 등 일련의 현상들을 포괄

영화는 이러한 현상들에 해당하는 장면들 을 친구, 손님·점원, 가족, 부부 관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간단한 상황극으로 꾸며 그 홍보 및 계 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남성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음성과 단호한 말투로 이루어진 해설 이 더해지는데. 여기에 '위험천만한 망국적인 생 각', '사대주의적인 풍조', '주체성을 상실한 사람 들의 망상', '몰지각한 상인들의 장난', '매국적인 요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오로지 자 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밀수배들' 등 원색적인 표 현이 쓰임으로써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진다.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정식

으로 조인된 뒤 동년 8월 14일 국회에서 여당 단 독으로 비준되었으며. 〈배격해야 할 풍조〉는 바 로 그 직후에 만들어진 문화영화였다. 주목되는 것은, 동일한 시점에 한일 국교 정상화의 취지와 과정을 다룬 문화영화 〈구원을 씻고 내일을 위하 여〉도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거대한 정치·외교적인 이슈를 둘러싸고 '국책'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잠재우는 한편 미시적으로는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 하 에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두 편의 문화영화 가 동시에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배격해야 할 풍조〉 해설원고 수정안 BA0791894



00:16

- 여자1 아나 늦었지.
- 여자2 얘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아홉시 반이야.
- 여자1 아이 글쎄 그 택시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있어야지 글쎄.
- 여자2 어머 너 목걸이 좋은 거 했구나?
- 여자1 어일제야.
- 여자2 어쩐지 산뜻하더라. 너 화장품도 일제 쓰 는구나?
- 여자1 그럼. 이건 옛날부터 쓰던 건데 국산은 도 대체 화장이 먹어야지.
- 여자2 이거 어디서들 구하지?
- 여자1 그건 비밀.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어. 한 일회담이 되어서 앞으로는 막 밀려들 텐 데 뭐
- 여자2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얘.
- 여자1 어머 너 이 백, 일제로구나. 어쩜 색이 이 렇게 예쁘니?
- 여자2 아니야. 국산이야.
- 여자1 어쩐지 투박해 보이더라. 엽전 것은 할 수 없어.
- 여자2 나도 이젠 일제를 써야겠어.

01:23

- 손님 저 이거 좀 보여주세요.
- 네. 이거 말씀이에요?
- 손님 네. 이거 외제에요?
- 점원 아이 아니에요. 국산품이에요.

거기에다 또한 예술을 상품으로만 아는 무 ◀ 02:32

책임한 예술인들은 진정한 민족의 생활 정서는 아 랑곳없이 마구 남의 나라 작품들을 표절하고 모방 하는가 하면은, 일부 다방과 요정에서는 의식적으 로 일본풍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일 국 교 정상화가 결코 이러한 일본풍의 문화를 무조 건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 다고 우리는 남의 문화를 배격하자는 것도 아닙니 다. 우리들은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064

들의 확고한 주체 의식을 확립해서 옳고 그른 것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면서 남의 문화 를 소화시켜야겠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과자야?

아빠 아니 책이다.

엄마 아니 웬일이시오. 책을 다 사 오시고 도대 체 무슨 책이에요?

아빠 일본어 첫 걸음 책이야.

엄마 아니 일본어 교과서요?

아빠 어 큰 녀석에게 일본말을 좀 가르쳐 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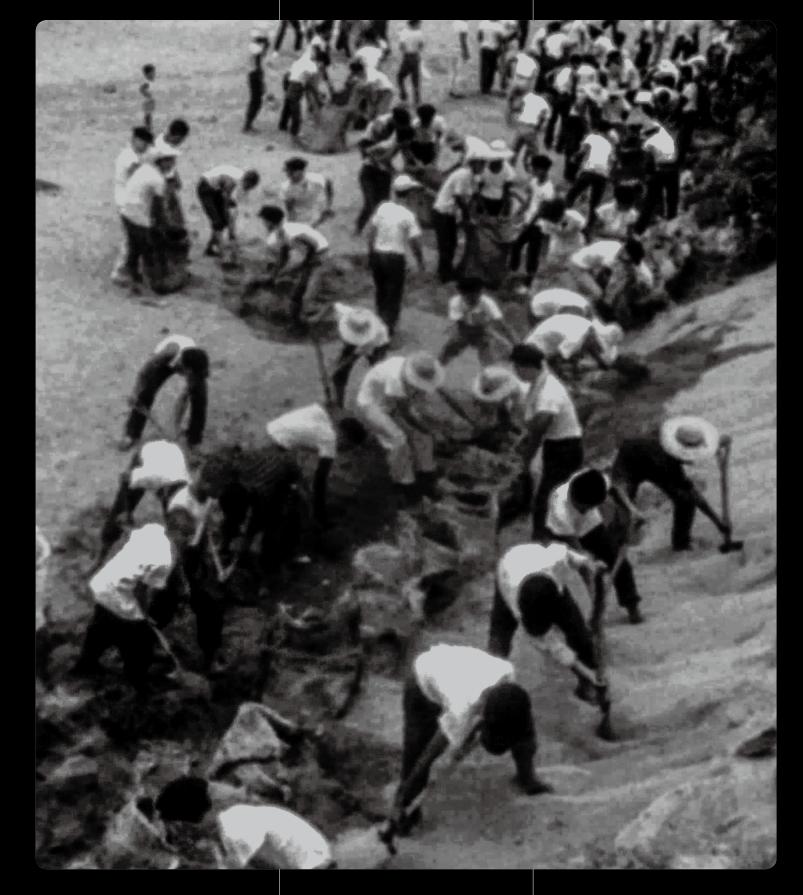
이들 일본말이요? 아니 아버지도 일본말을 배 우려면 차라리 독일어를 배우는 게 낫죠.

엄마 원 배울 것도 많지. 아이 영어 한 가지 배 우기도 힘이 드는데 무슨 일본 말이요?

아빠 모르는 소리 이제 영어보다 일본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아 일본 세상이 들이닥 칠 텐데 일본말 안 배우고 뭘 배우겠어.

우리들의 주변에는 이러한 헛된 꿈을 꾸고 ◀ 05:38 있는 사람들이 파다히 있습니다. 일본 상인과 한 번 결탁을 해서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는 부질없 는 꿈을 꾸는 자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밀수 배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우리들의 주체 의식을 확고히 확립해서 외래품과 사치를 배 격하고 우리 것을 사랑하고 아껴 쓰며 또한 검소한 생활로 저축을 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 은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살림 내집살림



OR 찍고 영화보기



송해와 서영춘의 만담을 통해 납세의무를 설 명하는 영상기록이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 국가살림에 이바지하고 간접적으로 다시 내 집 살림에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 🊝 강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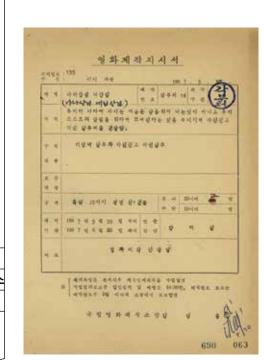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 생산기관 관리번호 🤍 CEN0003067

재생시간 🕑 7분 48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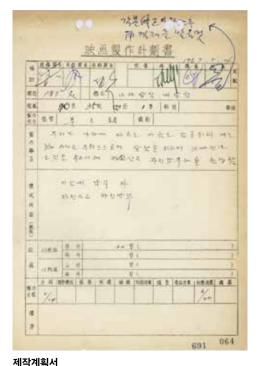
성격을 띠고 있다. 납세 의무의 중요성과 납부된 세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가 세금을 안내면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다"는 점 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소 껄끄러울 법한 납세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서울 중심지에 위치 한 고층 건물의 옥상에서 '살살이' 서영춘과 '맹 꽁이' 송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설정을 통해 영 화는 부담 없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그 경계 감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두 인기 코미디언들이 나누는 만

이 작품은 국민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계몽적

담 형식의 대화 속에 단막극 형식으로 세 가지 유 형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내용 이해의 용이함과 영상 시청의 즐거움을 선사한 다. 단막극 속에는 세금 납부 기간을 넘겨놓고 세 무서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가정 주부. 경리 과장 에게 탈세를 명하는 회사 사장, 친구와 술을 마시 는 바람에 세금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젊은 남성의 모습이 차례로 나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성, 주부, 사장이 등장하여 세금을 통해 거리 학교. 염전 둑 등의 시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



제작지시서 BA0792005



BA0792005

실을 전달한다.

뒤이어 맹꽁이와 살살이가 교대로 "님께서 내신 세금 꿔준 셈 치시고" "해묵은 산과 들을 기 름지게 가꾸오리니" "보람찬 조국근대화 꽃을 피 워 갚으리로다"라는 내용의 풍월을 읊으면서, 영 화는 유쾌함을 유지한 채 막을 내린다. 두 사람 의 모습 뒤로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의 풍경 이 유동적 움직임의 카메라를 통해 화면에 전시 되고 있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라 할 만하 다. 1960년대 전반기에 만들어진 (밝아오는 내 일〉(1960), 〈세금은 무엇에?〉(1963), 〈세금은 이렇게 납세는 이렇게〉(1964) 등 납세 문제를 다룬 여러 문화영화들과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하 겠다.



.

00:12

- 살살이 에헤, 그새 정말 서울도 많이 달라졌군. 이 쭉쭉 뻗은 빌딩, 이 훤히 트인 이 대로, 하 ~ 저, 저 육교 좀 보게 아이구.
- 맹꽁이 여봐, 살살이. 이 사람아 뭐를 혼자 중얼
- 살살이 아, 맹꽁이. 자네 이쪽도 봤겠지만 말이야. 저기 버티고 있는 육교, 저게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지 자네 아나?
- 맹꽁이 아~ 그야 물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 지. 뭐야 이 사람아.
- 살살이 웃기는구나. 뒤통수를… 이런, 이거 봐 이 건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졌 단 말이야.
- 맹꽁이 아니 세금으로 어떻게 육교를 만드냐 이거 Oŧ.
- 살살이 아, 우리가 낸 세금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 을 봤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 졌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만 성공한다면 자립경제 를 이룩하고 아울러…



"우리가 낸 세금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봤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졌다 말이야."



아주머니 못 내요, 못내.

남자 아주머니네가 다른 집보다 세금이 많이 나 온 게 아닙니다.

아주머니 다 알아봤어요. 갑돌이네와 우리 집은 수입이 비슷한데도 우리가 더 많잖아요.

남자 갑돌이네 집은 자진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 에 1할이 공제된 것이며, 아주머니는 자진 신고 납부를 안 했는데다가 기한도 넘겨서 1할의 가산금까지 물게 되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 남자 어~ 이군, 어디 가나?
- 이군 어, 세무서에 가는 길이야.
- 남자 어~ 이거 오래간만인데 그냥 헤어질 수 있나. 아… 간단히 할까?
- 이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안으로 꼭 갖 다 내야 돼.
- 남자 어, 이 친구 뭘 그래.
- 이군 세금 낼 날이 오늘까지거든.
- 남자 아따, 이 사람아. 아주 깔고 뭉개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래. 아이 나참…
- 이군 아 참. 그럼 갖다 와서 만나지.
- 남자 사람 참… 이렇게 고지식하니, 여편네 심 부름이나 하고 다니지. 자, 가세.
- 이군 아… 그… 옛다 모르겠다.
- 살살이 사실 세금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 ◀ 06:10 을 지켜주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업에 쓰이니까 결국 우리한테 되돌 아오는 격이라고.
- 맹꽁이 아… 쉽게 말하자면 월급을 타서 마누라한 테 갖다 주는 거 하고 비슷하군그래.
- 살살이 그렇지. 남편이 술이나 마시고 가정을 등 한시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 맹꽁이 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내 면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다. 이 말이로군 그래.





07:27

- 살살이 허허허. 이거 봐. 뭐 따지고 보면 뭐 똑같 은 입장인데 그럼 우리 우리 이 배운 풍월 이나 읊어볼까?
- 맹꽁이 어, 그거 좋지!
- 살살이 그래. 너 먼저 하라고.
- 맹꽁이 님께서 내신 세금 꿔준 셈 치시고
- 살살이 해묵은 산과 들을 기름지게 가꾸오리니.
- 맹꽁이, 살살이 보람찬 조국근대화 꽃을 피워 갚 으리로다.





신업시킨즈(시멘트공업)

1970



QR 찍고 영화보기



시멘트 공업에 대한 설명, 시멘트 생산 단계 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시멘트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 🊝 이지완

재생시간 🕑 8분 13초

국립영화 제작소

CEN0003511

생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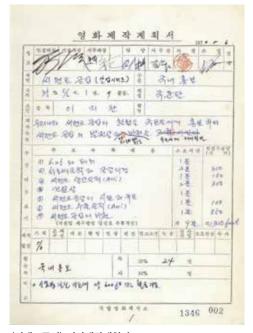
관리번호 🔍

한국 시멘트 공업의 현황을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산업 홍보물로, 전체의 내용은 '석회석 굴착과 공장 외경-시멘트 생산 실적-건설 상(像)-시멘트 공장의 시설과 규모-시멘트 수출실적-시멘트공업의 현재적 효용과 낙관적 전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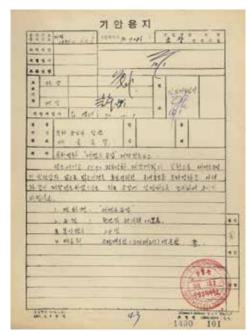
이를 통해 영화는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이 1960년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6개의 시멘트 공장을 더 세우고 괄목할 만한 생산량 증대를 실현함으로써 '번영의 70년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 작품은 경쾌한 여러 배경 음악과 어우러 진 여성 내레이터의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시멘 트공업의 발전상과 현황, 미래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1962년과 1969년 사이의 시멘트 생산 실적 및 수출 실적의 변화에 관한 내 용의 경우, 그래프 화면을 통해 설명의 효과를 높 이기도 한다. 이로써 정부의 공업 육성 정책에 대 한 홍보 효과를 고양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제작 패턴은 〈한국의 섬유 공업〉(1975), 〈한국의 기계공업 -'77 한국기계 전-〉(1977), 〈한국의 중화학공업〉(1981) 등 여 타 문화영화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시멘트공업〉영화제작계획서
BA0792151



《시멘트공업》 제작 완료보고 BA0792151



00:28 ▶ 한 덩이 돌에 지나지 않는 석회석. 우리나라 가 곳곳에서 무진장으로 보유되고 있는 석회석. 이것이 바로 경제건설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귀중한 시멘트의 원료입니다. 그러나 1960년경까지만 해도 우리는 동양시멘트와 대한시멘트에서 약간의 시멘트를 생산해왔을 뿐, 기술과 시설 부족으로 수요량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시멘트의 품귀 상태는 물가에 타격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 ◀ 01:01 간 중에 대규모의 시멘트공장이 여섯 개나 들어서 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세워진 것으로서 연간 70만 톤 규모의 쌍용 시멘 트공장, 연간 40만 톤을 생산하는 현대 시멘트와 100만 톤을 생산하는 한일 시멘트공장. 연간 50 만 톤을 생산하는 충북 시멘트공장. 그리고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생 산능력을 갖추는 쌍용 대단위 시멘트공장이 세워 졌고, 또한 연간 100만 톤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성신 시멘트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 려 시멘트공장이 그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존 의 공장 시설들이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시멘 트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





04:29 ▶ 무엇보다 시멘트 공업이 성공적으로 발전 해감에 따라 도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촌 근대화에 새로운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볏짚을 엮어 지붕을 잇던 농가의 처가 지붕이 시멘트를 원료로 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말끔히 개량돼가고 있습니다. 돌담과 흙담은 탄탄한 블록 담장으로 바뀌어졌고 시멘트로 된 전신주가 마을마다연결되어 도시와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으며, 마을 근처에 저수지와 시멘트로 보완된 수로 등 수리시설이 갖추어지고, 마을 앞 징검다리도 우마차와트럭이 왕래할 수 있도록 시멘트 콘크리트로 놓여졌습니다.

이제 번영의 70년대에는 더 많은 시멘트 ◀ 05:52 ■ ■ ■ ■ ■ ■ ■ ■ ■ ■ ■ ■ ■ 공장과 시설이 확장되어 도시와 농촌의 건설사 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력도 증강되어 더 많은 고용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 니다.





06:48 시멘트가 부족하여 모든 건설사업이 부진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조국 근대화에 터전을 굳 혀가는 건설의 메아리는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 니다. 모든 기간산업의 건설공장은 물론 전력개발 을 위한 댐 건설, 항만 건설을 위한 독 공사, 항구 적인 제방 건설, 보다 신속한 수송을 위한 터널 공 사, 그리고 철도 침목,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대 교, 전국을 일일권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복잡 한 도시의 교통순환을 위한 고가도로와 지하도, 그리고 국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대식 아 파트 등 수 많은 건설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풀장 등 문명으로의 터전 은 튼튼한 시멘트로 더욱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산업의 하나인 시멘트 공업은 번영의 70 년대를 향한 벅찬 조국 근대화 작업에 크게 이바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람찬 내일





내일의 비전을 소개한다.

QR 찍고 영화보기

10월 유신의 당위성을 홍보하며 이를 통한

감독 🚝 강대철

국립영화 제작소 생산기관

관리번호 🔍 CEN0003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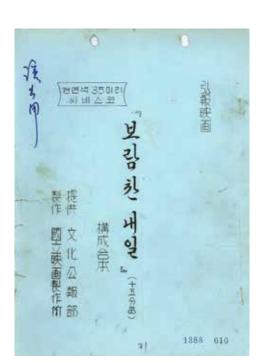
재생시간 🕑 8분 55초

〈보람찬 내일〉의 메시지는 "진정 잘사는 내일, 평 화통일의 내일"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 선포 된 '10월 유신'을 지지하고 이러한 자세로 국민투 표에 참여하자는 데로 모아진다. 이 작품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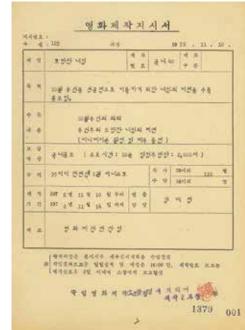
먼저, 윤정희가 자신을 소개하고 변화된 한국 사회, 특히 농어촌의 발전상에 관해 말한 뒤 '10월 유신'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제도를 알맞게 고치고 잘못 된 모든 것을 바르게 고쳐" 10월 유신을 지지하 고 그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이어, 다시 윤정희가 화면을 보며 '혼란과 파 멸'이 아닌 '안정과 번영'을 위해 다함께 전진할 것을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11월 21일에 있을 국민투표를 통해 "겨레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전진"해야 함을 재차 강변한다.

영화는 인기 여배우 윤정희를 내세워 카메 라(국민)를 향해 말을 거는 한편, 경쾌한 배경 음 악 위로 남성 내레이터의 설명을 통해 10월 유신 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또한 실사 장면들 사이에

그림과 글자 형태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삽입됨 으로써 그 선전 효과를 더하기도 한다. 국민투표 는 결국 투표율 91.9%, 찬성 91.5%로 가결되었 고, 이에 따라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선포된 후 1979년까지 유신체제가 유지되었다.



영화대본 BA0792277



영화제작지시서 BA0792277



00:24 ▶ 배우 윤정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영화 속에서만 보시던 윤정희예요. 하지만 오늘은 영화 의 주인공이 아닌 윤정희로서 여러분을 뵙고자 해 요. 왜냐고요? 전 이번에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돌 아 봤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하도 감격스 러워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진 거예요. 허허벌판에 세워진 공장도 공장이려니와, 농촌 살 림이 달라진 걸 보고 전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긴 세월 그토록 가난하게 서럽게 살아온 우리가 마음 먹은 지 10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으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 아요? 내친김에 우리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한 번 잘살아 봐야지 않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보자는 것이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잘살아 보자는 우리의 부푼 꿈 을 깨트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 10월 유신에 앞장서야 하겠어요. 우리가 힘 을 모아 10월 유신을 성공시킬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보람이 올 것인지, 여기 10년 후에 꿈같은 현 실을 한번 보세요.

"전이번에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돌아봤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하도 감격스러워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진 거예요 허허벌판에 세워진 공장도 공장이려니와 농촌 살림이 달라진걸 보고 전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그때 가서 우리의 국토는 이렇게 바뀐다. ◀ 04:55 곳곳에 댐이 세워져 홍수를 막고 가뭄을 없앤다. 여기서 얻는 풍부한 전력은 두메 마을까지 두루 밝 히게 된다. 울창한 숲이 끝나는 푸른 목장에는 젖 소가 풀을 뜯고 끝없는 농장을 가로지른 고속도로 위에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이 쉴 사이 없이 오고 가며, 곳곳에 공업단지가 알맞게 들어서고, 농어촌은 수리시설과 경지정리를 모두 끝내고, 주 택은 개량되고, 의료시설, 전기, 전화, 수도, 텔레 비(텔레비전) 등 문화시설은 10년 안으로 완전히 마치게 되어 농어민들도 여유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06:53 🕨 배우 윤정희 여러분, 전 지금 막 잘 사는 외국에서 돌아온 느낌이에요. 전 지금의 이 부푼 꿈을 결코 깨트리고 싶지 않아요. 그 길은 바로 10월

유신을 성공시키는 길이 아닐까요? 만에 일이라도 10월 유신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뒤에 있을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휘몰아치는 외세, 걷잡을 수 없는 국내의 혼란, 모처럼 터놓은 통일의 길마저 막혀버린다면, 그 칠흑 같은 절망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안정과 반영이냐 혼란과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거예요. 오늘을 슬기롭게 판단해서 60년도의 발전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 함께 전진할 때 진정 잘 사는 내일, 평화통일의 내일이 이룩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엄숙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서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의 꿈을 꼭 이룩하도록 하세요. 네?

"다 함께 전진할 때 진정 잘 사는 내일 평화통일의 내일이 이룩될 거예요."







079

쌀

1975 =



OR 찍고 영화보기



우리의 주식인 쌀을 7분도 쌀과 9분도 쌀로 나누어 영양가를 비교한 뒤 7분도 쌀을 먹 음으로써 생기는 이점을 설명한다. 세계적 으로 식량문제가 심각한 만큼 잡곡밥이나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쌀로 떡·과 자·케익·엿·술 등을 만들지 말고 쌀을 절약 하자고 홍보한다.

감독 櫡 이창효

국립영화 제작소 생산기관

관리번호 🔍 CEN0004018

재생시간 🕑 9분 25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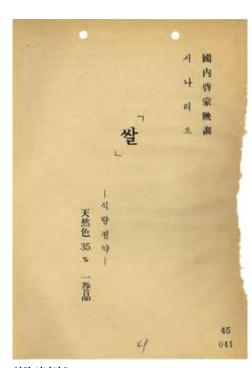
이 작품에는 쌀의 도정, 운반, 거래, 판매 과정이 담긴 장면들과 쌀 소비의 유형이 담긴 장면들, 그 리고 7분도 쌀과 9분도 쌀의 개념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다룬 애니메이션 및 식량 부족 국가 사람 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이 화면을 향해 이야기 를 건네는 한 주부의 내레이션 내용에 맞게 논리 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특히 쌀 소비의 유형이 담긴 장면들에서는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르는 내레이터의 가정과 여전히 흰 쌀밥을 (과)소비하는 가정들이 대비를 이루는 동시에, 엿과 강정, 과자와 케이크, 쌀로 빚은 주류 등을 제조하는 부정적 광경이 다채롭 게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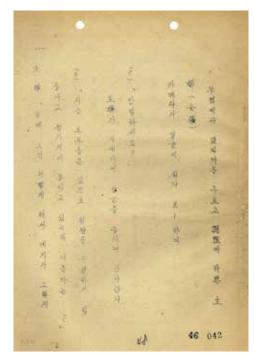
1974년 12월 4일 양곡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한 농수산부의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12월 23일부터 9분도의 '일반미'가 판매 금지되고 12 월 28일부터 음식점에서는 잡곡 30%가 섞인 공 기밥만을 팔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영화의 제작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77년 쌀의 자급이 현실화됨에 따라 14 년간 지속된 쌀 막걸리의 제조 금지 및 무미일(無

米日) 지정이 폐지되었던 바, 이 작품은 1970년 대 중반까지 이어진 정부의 식량 통제 정책과 가 정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귀중한 영상 자료로 남 게 되었다. 아울러, 혼식을 장려하여 쌀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문화영화가 이미 1950년대부터 제작되어 왔음을 감안하건대, 그 의의는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영화 시나리오 BA0792500



00:35

- PD 안녕하세요?
- 주부 네. 안녕하세요.
- PD 네. 지금 주부들은 앞으로 흰쌀을 구경하 고 힘들다고 쌀가게에 모여들고 있는데 아 줌마는 왜…?
- 주부 글쎄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그렇 게 잘못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상당히 주부들도 오해가 풀리신 모양이던 데요. 한때는 정말 쌀가게의 쌀이 다 동이 날 듯이 야단이었지 않나요? 앞으로는 영 흰쌀 구경은 못 할 것처럼들 말이에요. 그 래서 빚을 내가면서까지 집집마다 몇 가마 니씩 그냥 쌓아뒀던 것을 후회하신다는 주 부들도 요즘 많이 계시더군요.
- 주부 이는 정부에서 앞으로는 9분도(分 ◀ 01:26 度)가 아닌 7분도의 쌀만을 팔게 한다는 데서 주부들이 크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권장한 것은 현미가 아니에요. 아 참, 여기 보세요. 제가 견본(見本)을 하 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세요. 여기 맨 윗 줄에 있는 게 현미예요. 그리고 이 아래 것 이 우리가 먹어온 9분도 쌀, 맨 밑의 것이 7분도 쌀인데 현미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03:55

주부 바로 지금 제가 7분도 쌀로 밥을 지어봤어 요. 밥을 안칠 때 종래와 똑같은 양의 물을 붓고 끓이는 것도 종래의 쌀과 같이 30분 내외며, 다만 뜸 들이는 시간은 좀 전의 9 분도 쌀보다 5분 정도 더 두면 이렇게 알 맞은 밥이 되더군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 들을 위해서 밥을 해 먹이는 우리 주부들 의 입장으로서는 쌀을 좀 바꿔서 밥을 지 었다고 해서 더 불편할 것은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영화 해설

080

PD 네, 맛은 종래의 쌀밥 맛과는 어때요?

주부 오히려 밥맛이 더 구수해요. 이는 우리 온
가족들이 일치되는 의견이죠. 그리고 여
기 이걸 보세요! 더 윤기가 흐르고 찰지지
않나요? 이러니 우리 주부들이 7분도 쌀
을 오히려 환영할 일이지 피할 이유라고
는 알고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들 생각했지 뭐에요 우리가 7분도 쌀을
먹음으로써 전국적으로 한해의 52만 석의
쌀을 아끼게 된다니 그게 어디에요?

05:55

주부 밀가루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쌀을 외국에서 들여올 때 쌀은 밀가루보다 곱절이나 비싸고, 또 잡곡도 쌀에 못지않게 영양가가 많은 곡식인데도 쌀밥이 아니면 밥이 아닌 걸로 알아왔으니 큰 잘못이



라고 보이죠. 그래서 저는 쌀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잡곡밥이나 밀가루 음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간혹 투정을 한 적도 있지만요. 이제는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모두들 잘들 먹어요.



05:55

주부 그러자면은요 식량을 아끼자는 길 뿐이 죠. 흰쌀로 떡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요. 또 귀한 외화를 들여 사 온 밀가루나 쌀로 과자라던가요. 케이크라는 거요. 또, 우리가 늘 흔히 먹고 있는 엿 있죠? 그리고 남자분들도 잡수는 술을 빚어서 없애 가지고는 안 되겠죠?

주부 이 참상을 보세요. 세계를 휩쓸고 4 08:32 있는 굶주림의 처참한 모습들 굶주림 앞에서는 국제 간의 힘도 별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에서 곧도와주려니,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죠. 점차 세계적으로 식량이 딸리자 식량을 가진나라도 좀처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굶주림의 국민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오직 많이 생산하고 식량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식량의 곤란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내일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쌀 한 톨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겠어요.



082

영화 해설

한국의종교



OR 찍고 영화보기



우리나라의 각종 종교활동(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천도교)과 국민들 의 자유로운 신앙생활 모습을 수록한다.

> 감독 🚝 김기풍

생산기관

국립영화 제작소 관리번호 🔍 CEN0006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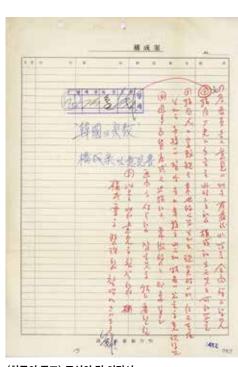
재생시간 🕑 19분 11초

영화의 전체 구조는 해와 달, 산천을 섬기는 무속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종교가 다양한 외래 문화의 수용과 변형을 거쳐 불교, 유교, 천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등으로 발전되어온 과 정과, 각 종교의 사찰이나 예배당, 성직자 및 신 도 숫자를 비롯한 현재적 정보, 그리고 이들 종 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일 등의 순서로 이루어 져 있다. 시간적으로는 도입부 2분 40여 초, 불 교 5분 45초, 유교 1분 55초, 천도교 1분 20여 초, 이슬람교 45초, 천주교 2분 30여 초, 개신 교 5분 5초 등으로 차등화되었는데, 이는 종교별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른 배분이라 할 만

이 작품에서는 한국의 토속적 자연 경관과 현대 사회의 풍경에 더하여, 각종 종교를 상징하 는 대표적 공간(불국사·해인사·조계사, 성균관 명 륜당, 천도교 중앙대교당, 서울 중앙성원, 절두산 순교성지·명동성당, 영락교회·순복음교회 등)의 수려한 자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다채 롭게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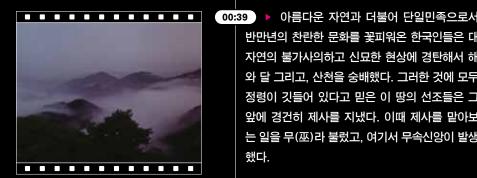
한국의 불교 문화를 제재로 삼아 제11회 아시아영화제 최우수 비극(悲劇)영화상을 수상 한 문화영화 〈열반〉(1964)과 비교할 때, 이 작품 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 다양성은 더욱 두드러

또한, 고려 시대의 호국불교, 조선시대 유 교의 국가 이념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천도교 의 민족 투쟁, 한국전쟁 직후 이슬람교의 유입, 천주교의 사회 활동, 개신교의 문명화운동 등의 역사적 자취를 되짚으며 종교의 의미를 국가적 가치와 연결시키면서 홍보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 에서 시대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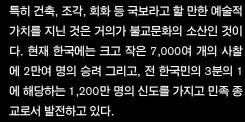
〈한국의 종교〉 구성안 및 의견서 BA0792771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한국인들은 대 자연의 불가사의하고 신묘한 현상에 경탄해서 해 와 달 그리고, 산천을 숭배했다. 그러한 것에 모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은 이 땅의 선조들은 그 앞에 경건히 제사를 지냈다. 이때 제사를 맡아보 는 일을 무(巫)라 불렀고, 여기서 무속신앙이 발생 했다.

한국 불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교리를 중 ◀ 04:51 요시하는 교종(敎宗)과 참선을 중요시하는 선종 (禪宗), 이 두 종파가 서로 화합한 통합적 정신에 있다. 신라시대부터 많은 고승의 이상이었던 이 두 종파 간의 화합은 1941년에 마침내 이루어져 서 새 종명을 조계종이라 했다. 한국인의 정신에 불교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깊은 영향을 준 종교는



특히, 근래에 와서 많은 사찰이 도시로 나왔고, 일 반 가정에까지 불상을 모시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 고 있다. 한국 불교의 자랑은 호국불교라는 데 있 다. 일선에서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있는 장병 들은 부대 안에서 열리는 법회를 통해 오늘도 호국 의 결의를 다진다.





08:36 > 한국의 유교는 삼국시대의 불교 전래와 거 의 같은 때에 들어와서 고려 중엽부터 그 사상적 위치를 굳혔다. 14세기 말 유학파 혁명 세력에 의 해 창건된 근세 조선은 불교를 억제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유교의 융성을 가져왔 다. 이 당시 나라 안 전체에는 학문을 숭상하고 청 빈(淸貧) 고결(高潔)하게 생활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어 오늘날까지도 좋은 전통을 이루고 있다. 한 국인의 예절과 가정의례는 모두 이때의 유교의 방 식으로 정착됐으며, 오늘날 충효 사상의 근본도 이때에 확립된 것이다.



■ ■ ■ ■ ■ ■ ■ ■ ■ ■ ■ ■ ■ 10:27 ▶ 한국의 고유 종교인 천도교는 기독교와 더 불어 밀물처럼 들어오는 서학에 대응해서 유교와 불교, 선교를 융합한 교리로써, 지상천국을 이상 으로 1860년에 시작됐다. 교조 최수운은 유학자 가문에서 태어나 당시의 어두운 세상을 구제하겠 다는 일념에서 재래의 모든 종교들을 연구한 뒤 천 도를 깨닫고 이를 일반에 전파한 것이다.

> 이슬람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것은 한국 ◀ 11:54 전쟁 직후인 1956년, 터키 부대의 한 종군 목사의 포교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중동 지 방 진출을 계기로 교세의 확충이 눈에 띄는 한국 이슬람교는 현재 활발한 전교 활동을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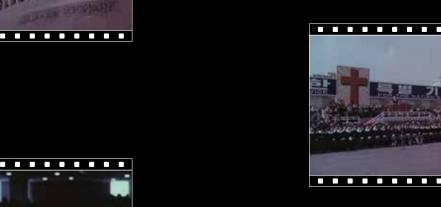




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을 한 데서 시작됐다. 이 천주교는 선조 에 대한 한국인들의 제사 관습을 우상숭배라 해서 금지했기 때문에 첫 수난을 받게 된다.



1950년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 16:08 발전을 하는 개신교는 현재 59개의 교단에 18. 000여 개의 교회와 5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 어 한국에서 불교 다음으로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다.









1977년 3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교파를 초 월한 전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통일 과 번영을 기원하는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열 렸다. 한국의 종교는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나, 특히 종교 말살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 공산 주의자들과 대결에서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구국 의 대열에 혼연히 참여한다.

나리를 위한 특별 기도회, 여기에 한국 종 ◀ 18:49 교에 거는 한국인들의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인플레를 잡는 길

1982



QR 찍고 영화보기



경제 안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범국 민적 참여를 호소한다.

감독 ؒ 박순구

생산기관 🚨 국립영화 제작소

관리번호 🤍 CEN0006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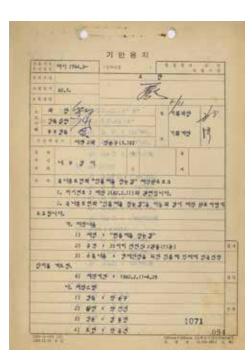
재생시간 🕑 14분 6초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단계로 그 내용이 배열되어 있다. 첫째,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병이었던 인플레 현상이 최근 정부의 노력과 온국민의 협력으로 완화되었음을 환기시킨다. 둘째, 인플레의 개념과 그 발생 원인에 대해 과거한국 경제의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 제시한다. 셋째, 인플레의 문제점에 대해 수출 및 저축 부진, 고용 불안 등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넷째, 인플레의 해결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 절감 및 통화억제,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의 생산비 절감 및경쟁력 증진, 가계에서의 물자 절약과 저축 생활화등을 강조한다. 다섯째,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하에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각오의필요성을 재차 인지하도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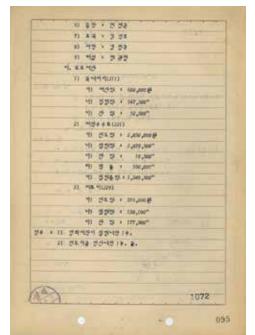
영화는 각 단계별로 균형 있게 시간을 배분한 상태에서, 과거와 현재의 관공서와 은행, 회사 및 공장 등 산업 현장, 백화점과 시장, 거리와 주택가 등의 풍경을 두루 펼쳐 보인다. 여기에 아나운서 맹관영의 목소리로 구성된 내레이션을 통해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전문가의 해설과 현장 관계자의 인터뷰, 일본과 서독의 예시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5공화국의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경제 정책의 기조와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 1980년대 초 한국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물자 절약 및 과소 비 억제를 주제로 한 기존의 문화영화들과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만하다.



국내 홍보영화 〈인플레를 잡는 길〉 제작완료보고 BA0793222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가를 꼭 잡아야 한다는 우리 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밀어닥 친 불황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만성 화된 인플레의 병을 앓아 왔습니다. 지난 70년대 를 고도성장이라고 하지만 고도성장에서 수반된 인플레의 해독 또한 그만큼이나 컸다고 하겠습니 다. 최근 2, 3년 동안 정부는 이 만성화된 인플레 를 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 행히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퍼센트(%) 선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70년대에 한창 치솟던 물가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경 험을 토대로 정부는 올해는 기필코 10퍼센트(%) 이내의 한 자리 숫자로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 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은 온 국민의 이

> 그러면 인플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인 사공일 씨는,

해와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공일 인플레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물 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 야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현상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서 예를 들면 어느 한 해의 물가가 즉 인플 레가 10퍼센트(%)였다고 하면 물가가 10 퍼센트(%) 올라갔다, 혹은 거꾸로 얘기해 서 돈의 가치가 10퍼센트(%)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물건 이 1,200원을 줘야 산다고 하는 이런 현 상을 가지고 인플레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088 문화영화, 시대를 비추다 영화해설 연화해설 089



사공일 그러면 이 인플레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해 독이라 할까.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 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인플레는 여 러 가지 문제를 수반을 합니다. 그 첫째 경 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 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 하에서는, 즉 물가가 빨리 올 라가는 상태에서는 수출이 안 됩니다. 수 출이 안 되는 이유는 아주 당연하지요. 즉 우리나라 물가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외 국 물가에 비해서 비싸게 되니까 결국 우 리 물건이 안 팔리게 되니까 바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된다 고 하는 것이 인플레에 따르는 가장 큰 해 독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는 이 인플레 하에서는, 즉 물가가 빨리 올 라가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안 해주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한 것 이 물가가 빨리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고 있으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물가를 사려 하는 이러한 경향이 생길 것이기 때 문에 오히려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 이 또 인플레에 따른 큰 해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 ◀ 08:26 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고 생 각합니다. 이 수출도 근래에 들어와서 선 진각국이 보호 장벽을 쳐가지고 수출 환경 은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국 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수를 절감 한다든가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또한 우리 설계적인 기술 같은 것을 향상을 시켜서 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계공업 제품은 후진국하고의 경 쟁이 아니고 선진국과의 경쟁입니다. 그 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천한 기술로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수백 년, 수십 년씩 쌓아온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산 비를 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한 푼 이라도 아끼고 우리 근로자들, 기술자들 이 선진국 근로자들이나 기술자들 수준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기술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 나아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닥쳐 있 는 500억 불 벽, 1000억 불 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니다. 무엇보다 물가 오름세 심리를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구두쇠 작전을 생활화해서 소 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물가 인상을 억제하 는 길입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많은 주 부들이 생활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발은 물론 헌 옷까지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맞게 고쳐 입혀주는 알뜰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가를 선용한 가내부업으로 저축의 꿈을 키워가 는 데 성실한 주부들의 기쁨도 있습니다.

>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축이 ◀ 10:59 필요합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한 푼의 동전이라 도. 그리고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돈도 저축 을 해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드는 생산공장에 직 접 쓰여지도록 국민 모두가 밀어준다면 이자를 주 고 들여오는 외화도 자연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 이 바로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길이며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091



씨름

1983



QR 찍고 영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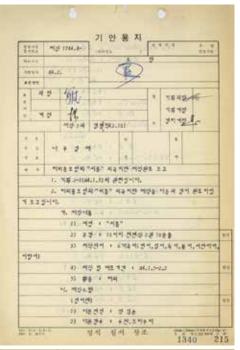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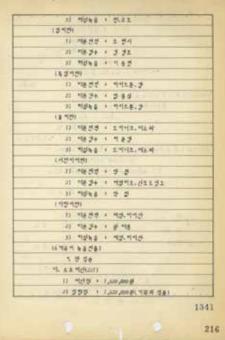
한국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을 통해 한국적 인 묘기와 진수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와 해 학 등을 소개한다. 1980년대 초는 한국에서 프로 야구(1982)와 프로 축구(1983)가 출범한 시기였다. 그리고 1983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장충체육 관에서 거행된 제1회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통해, 프로 씨름 시대도 개막되었다.

이 작품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의 준비 및 진 행 과정이 담겨져 있다. 서울, 대전, 대구, 마산, 진주 등지에서 촬영된 이만기, 홍현욱, 최욱진, 이준희, 이봉걸 등 걸출한 씨름 선수들의 훈련 모 습과 제2회 천하장사씨름대회 내 체급별 경기 장 면들이 결승전을 중심으로 박진감 넘치게 전시되 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모래판에서 사투를 벌이는 씨름 선수들의 근육질 몸과 긴장감 속에 둘러싸인 체육 관 곳곳의 풍경에 이어 승자와 패자의 상반된 표정과 이를 지켜보는 관중의 환호 소리가 어우러진다. 그리고 아나운서 맹관영의 해설과 씨름 대회의 현장음 등이 더해져 극적 긴장감이 배가된다.

영화는 서두에서 '씨름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 풍경과 전통 건물, 민속 회화 등과함께 국악 소리가 특유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속씨름이 현대화되는 일련의 과정이 화려한 영상미를 통해 기록되고 있다. 1984년 7월 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3회하계 올림픽에 맞추어 기획·제작된해외 홍보용 영상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씨름) 외국어판 제작완료 보고 BA0793385



.

널찍한 등판에서는 땀이 솟아 흐르고 푸짐한 뱃집은 가쁜 숨을 고르느라 펄럭인다. 육중한 두 몸이 밀착된 채, 잠시 정중동의 시각이 흐른다.

두 몸이 비호처럼 요동치는 순간 고목의 뿌 ◀ 00:57 리가 뽑히듯 모래를 차올린다.



01:13 ▶ 이윽고 한 쪽이 넘어진다. 씨름의 승부는 이렇게 가름 난다.



씨름. 한국 사람들에게 이 소리만큼 옛 고 ◀ 01:53 향의 정취를 물씬 풍겨주는 말도 드물다. 한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소년 시절 강가 모래사장 이나 언덕의 풀밭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씨름을 하 고 논 추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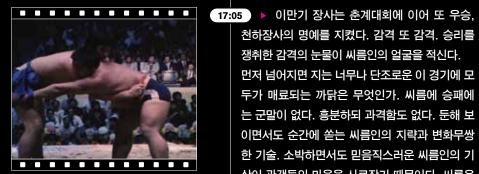
06:37 ▶ 해마다 봄가을 두 번에 걸쳐 한국 제일의 씨름인을 가리는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열린다. 씨름에 대한 열기와 흥겨움이 장내에 가득하고 국 민들의 관심 또한 씨름판에 집중된다.

> 화려한 입장식에 이은 농악과 사자놀이가 ◀ 07:01 경기장 분위기를 한층 화려하게 장식한다. 지름 9미터(m)의 둥근 씨름판. 여기에는 두께 50 센티미터(cm) 이상의 모래가 깔려있으며 주심 1 명, 부심 2명이 경기를 운영한다.

씨름의 체급은 한국 명산의 이름을 딴 태백, 금강, 한라, 백두 등 4체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체급별 대전은 3판 2승제이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된다.



감독 🊝 김항원



천하장사의 명예를 지켰다. 감격 또 감격. 승리를 쟁취한 감격의 눈물이 씨름인의 얼굴을 적신다. 먼저 넘어지면 지는 너무나 단조로운 이 경기에 모 두가 매료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씨름에 승패에 는 군말이 없다. 흥분하되 과격함도 없다. 둔해 보 이면서도 순간에 쏟는 씨름인의 지략과 변화무쌍 한 기술. 소박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씨름인의 기 상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씨름은 태권도와 더불어 한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온 전통적인 스포츠인 것이다.





복괴 금강산 댐 건설



OR 찍고 영화보기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관한 정보, 그에 따 른 위험성, 관계당국의 대응책과 국민 화합 의 필요성을 영화화한다.

감독 櫡 김기풍

국립영화 제작소

생산기관 관리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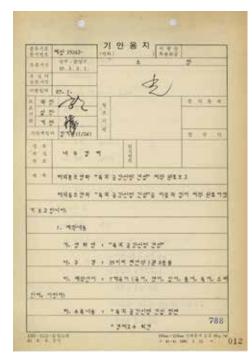
CEN0004993

재생시간 🕑 5분 49초

이규효 건설부장관의 대북 성명문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86년 10월 30일의 일이었고, 정부에서 평화의 댐 건설을 공 표한 시점은 11월 26일이었다. 〈북괴 금강산댐 건설〉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담겨져 있다.

영화는 '휴전선 부근과 금강산의 모습-금 강산댐 건설 관련 자료-댐 건설 관련 기자 회견 장면-평온한 자연 환경 및 금강산댐 방류 시 서 울의 홍수 예상 화면-방류 시 예상 침수 정도를 나타낸 애니메이션 이미지-각종 댐의 이미지와 서울 곳곳의 풍경-금강산댐 건설 중단 촉구 궐 기 대회 장면 – 평화의 댐 건설 결정과 대국민 모 금 현장의 모습-서울 도심 및 한강변의 풍경'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위기감과 경각심 고양 을 위해 아나운서 정경수의 내레이션과 더불어 1984년 여름 홍수 당시 서울의 이미지나 북한 측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한다. 특히, 금강산댐에서 각각 9억 톤과 200억 톤의 물이 방류되었을 때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한강 및 임



제작완료보고 BA0793620



제작계획서 BA0793620 진강의 지형도와 서울 내 주요 건물을 표현한 그 림 화면을 매개로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1980년대는 분단 상황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이 생겨나던 시기였고, 이는 동시기 문화 영화에도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간 이어 진 KBS 이산가족찾기 특별 생방송의 여정을 다 른 〈혈육의 절규〉(1983), 1985년 5월 27일부 터 30일까지 서울에서 12년 만에 재개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과 동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이어진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의 과정 을 기록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과 〈제9차 남 북적십자회담〉(이상 1985) 등을 들 수 있다. 그 리고 1987년 초 〈북괴 금강산댐 건설〉이 나왔던 바, 이를 통해 여러 굴곡을 겪었던 동시기 남북 관계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 ■ ■ ■ ■ ■ ■ ■ ■ ■ ■ ■ 00:22 ▶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허리. 휴전선 155마일(mile). 40년이 넘도록 한국 민족 의 비운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늘도 말이 없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는 북한 공산집단의 음흉한 계 략이 도사리고 있으니 70년대 이래 놀라운 경제적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 한국에 대해 초조와 시기심의 반로로 갖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남침용 땅굴 등에서도 명백히 드 러난 바 있다.

> 1986년 10월 21일, 북한은 돌연 금강산 ◀ 01:28 에 대규모 댐의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측에 대해 금강산 댐 건설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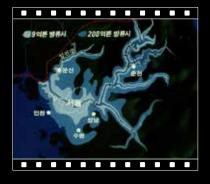
금강산 댐의 건설은 휴전선 이남인 한강 하류 지역 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공업, 농업, 생활용수 등 의 손실은 물론 전체 한강 유역의 동식물 생태계를 크게 파괴시키며 기상이변 현상으로 무서운 풍토 병을 발생케 하는 등 전 한강 연안 일대를 완전히 파괴, 황폐화시킬 것이다.

1984년에 한강 대홍수의 열 배에 달하는 수마가 서울 일원을 쓸어버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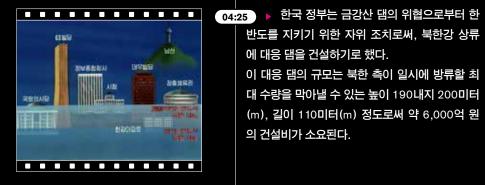




02:55 ▶ 만일 200억 톤(t)의 물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초당 230만 톤(t)의 거대한 물벼락이 높이 100미터(m) 이상의 물기둥을 이루며 쏟아져 내 려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등 5개 댐을 차례 로 덮치고 20여 시간 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강원. 경기 등 한반도의 중심권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 이다. 01: 51







반도를 지키기 위한 자위 조치로써, 북한강 상류 에 대응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 대응 댐의 규모는 북한 측이 일시에 방류할 최 대 수량을 막아낼 수 있는 높이 190내지 200미터 (m), 길이 110미터(m) 정도로써 약 6,000억 원 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04:50 > 가공할 북한의 수공전에 대비하기 위한 평 화의 댐 건설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의 댐 모금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지구총의 축제

1988



QR 찍고 영화보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및 실제 운영 내용을 홍보한다.

> _____ 독 도상선

생산기관 🚨 국립영화 제작소

관리번호 🥥 CEN0006731

재생시간 🕑 18분 35초

〈지구촌의 축제〉는 다채롭게 구성된 화면 위에 아나운서 맹관영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더하면서 서울 올림픽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올림픽 개최 사실과 대회 개요, 서울의 분위기와 조직위원회의 활동, 종목 별 경기장의 위치, 성황 봉송 과정,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 주요 경기장의 기능, 입장권 배분 및 통역 서비스, 보안 시스템과 보도체계, 문화·예술·학술 행사 및 관광 코스, 숙박 및부대 시설, 종목별 경기 일정, 예상 참가 인원 및운영 요원의 수, 메달의 종류 및 개수, 준비 완료 상황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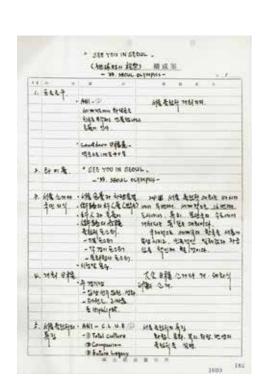
아울러, 그 과정에서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에서 거행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제작된 기록영화 속 장면들을 두루 발췌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풍경을 담은 기존 영상물과 올림픽 준비 과정 및관련 시설 등을 촬영한 화면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한편 영화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및 그 사이 사이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서울

올림픽에 대한 친밀감을 강화하고 대회 관련 사항들에 관한 이해도를 드높인다.

영화 제작에는 1988년 5월부터 2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하계 올림픽의 기간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였고 이어 열린 제8회 '장애인 올림픽'의 경우 동년 10월 15일부터 24일이었기에, 올림픽의 순조로운 준비 상황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적극적 참여와 지구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촌의 축제〉 구성안
BA0793753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올림픽 사상 가 **(**0) 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2번째, 세계에서는 16번째 도시에서, 특히 분단국의수도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03:29 ►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국제올림픽 위원회와 협조하여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과 봉사, 최대의 절약이란 5대 목표를 세우고 완벽한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년 8월 23일 오전 11시 그리스의 헤라 ◀ 04:46 신전에서 성화가 채화되어 2박 3일간 아테네까지 봉송되고 25일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태국의 방콕 을 거쳐 27일 한국의 섬 제주도에 도착, 22일 동 안의 국내 성화 봉송길에 오릅니다. 전국 61개 시

안의 국내 성화 몽송길에 오릅니다. 전국 61개 시를 경유하며 총 4,163킬로미터(km)의 단일코스로 서울에 도착되는데 성화가 숙박하는 주요 도시에서는 그 고장의 민속축제와 세계 각국의 전통예술단 공연도 함께 펼쳐집니다.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2번째, 세계에서는 16번째 도시에서, 특히 분단국의 수도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

14:41 ▶ 서울 올림픽 대회 16일간의 경기 일정과 경기별 237개 세부종목 수, 즉 금메달 개수를 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81년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 18:07
정된 그날부터 7년간의 완벽한 준비 작업은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동서 양 진영과 제3세계를 포함한 세계 161개국의 지구촌 가족들이 서울에 모여화합과 전진으로 향하는 평화의 대축제 행사에 우리 모두함께 참여합시다.







104

영화 해설

우리는 정보 가족



OR 찍고 영화보기



정보화 시대의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정보 활용이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이 끌어준다는 내용이다.

감독 🚝 김금동

국립영화 제작소 생산기관 관리번호 🤍 CEN0006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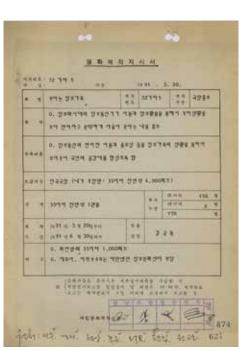
재생시간 🕑 7분 1초

이 작품은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내레이션 설 명이 포함된 기록영화 형식을 취하고 그 중간 부 분은 단편적인 서사를 담은 짧은 극영화로 채움 으로써 그 교육적·계몽적 효과를 배가시킨다.

단막극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는 간단명 료하다. 슬하에 7살 유치원생 딸 하나를 둔 37세 의 무역회사 부장 '정보통 씨(길용우 분)'가 자신 의 아내인 33세 주부 '김옥자 씨(견미리 분)'의 생일 기념으로 주말 제주도 여행을 약속하였으 나, 회사 일로 인해 이행이 어려워지자 여행을 보 류하는 한편 아내가 제안한 저녁 외식과 음악회 관람도 사양하는 대신 꽃 배달 서비스를 통해 장 미꽃 다발을 선물함으로써 결국에는 아내와 딸을 웃음 짓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단막극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1분여 씩의 장면에서는 다양한 실사 및 애니메이션 화면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정보의 중요성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통신망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990년대는 컴퓨터의 보급과 발달이 가 속화되고 무선호출기를 거쳐 휴대폰 등 개인 통 신 장비가 상용화되며 PC통신에 이어 인터넷 구 축이 보편화되어 가던, 정보통신의 혁신적 변화 가 일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상이 문화 영화 〈우리는 정보 가족〉에도 묻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전화도수제〉(1961)나 〈자동전화는 이 렇게〉(1962) 등과 같이 수십 년 전 제작된 문화 영화들과 비교하건대, 이러한 특징은 더욱 두드 러져 보인다.



제작지시서 BA0793941



녹음작업 신청서 BA0793941



■ ■ ■ ■ ■ ■ ■ ■ ■ ■ ■ ■ 00:02 ▶ 바이흐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 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정보 와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오늘. 막 상 필요한 때에 알맞은 정보를 얻으려면 많은 불편 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 정보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며 우리의 삶의 질 또 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활용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전화, 컴 ◀ 00:45 퓨터 같은 정보통신기기와 이들을 이어주는 네트 워크 즉, 통신망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통신망을 잘만 이용하면 누구나 정보 가족으로서 편리한 생 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보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 보통 씨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정보통 사랑하는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 여행 은 당분간 보류해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

김옥자 비행기 표까지 예약 다 끝났는데 할 수 없 지 그러면…

김옥자 송이 아빠! 여보! 그러면 저녁때 멋진 식사 를 하면 어떨까요. 네? 음악회도 가고요.

정보통 여보, 정말 미안해 저녁 식사, 음악회 모두 힘들겠어. 그렇지만 컴퓨터로 꽃 배달 주 문을 했으니까 곧 갈 거야. 당신, 생일 축

김옥자 아으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01: 51





김옥자 누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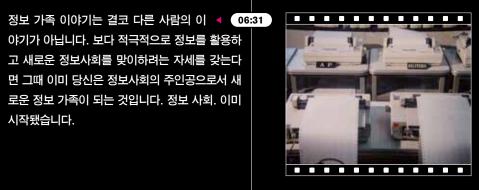
배달부 꽃 배달 왔습니다.

김옥자 자

정송이 컴퓨터가 꽃도 배달해주네.

김옥자 이쁘지?

야기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 고 새로운 정보사회를 맞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면 그때 이미 당신은 정보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새 로운 정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 사회. 이미 시작됐습니다.







영화 해설

쓰레기 종량제 그후

1995



OR 찍고 영화보기



1995년 1월 1일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정과 성과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 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감독 ؒ 박종철

______ 감독 😤 막 _____

생산기관 🚨 국립영화 제작소

관리번호 🔍 CEN0005813

재생시간 🕑 5분 52초

지구본 속 한국 지도 안에 가득 찬 쓰레기 사진이 한 가정의 분리수거 장면 및 꽃밭 그림 이미지로 바뀌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의 쓰레기 분리 사례가 화면에 나온다. 뒤이어 일본과 독일의 사례가 소개된뒤유럽, 일본, 한국의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 비교 수치가 차례로 제시된다. 화면은 다시 서울주택가와 아파트촌에서의 쓰레기 재활용 모습 및에니메이션 글씨 효과로 넘어가고, 이를 통해약1분간 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한 기본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떠한 공정을 거쳐유용한 재료로 재탄생하는지가 종이, 유리, 음식물 찌꺼기 등의 순으로 설명된다. 이어서 종량제실시 후 '쓰레기 감량 및 경제적효과'와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의 사례와 그 사회적, 경제적 효과, 그리고 지속적 유지의 필요성 등을, 다양하고 체계적인 화면 구성과 명확하고 논리적인 해설 전개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四) 世外世 神景性 性州 - 李明宗 管 中 安全行中)

국립 영상 제 작소

는 131-000 석을 인당구 적성을 200-31/ 프라(M)HMP-0100/ 프송(M)HMP-0014 영당 액운트

내는 그녀운지식한 '무역시 등등에 그용' 역하 등학 국가

1. 智可 AMED 12 1746. 上前報 審實質目標。

11 年 新 年 1 "四种对 奇华峰 江东"

* 004 10 0444

* 개원적문호, 가장, 공장

श अ ता । अनंत्र ततन । स (१४ स)

프레기 제임지에 가작한 쓰레기용
 항상에 있는 및 수업사례

45 -1

그 의 관련으로 쓰려기 중앙에서 설치하였다 성과 및 대통증을 등만 환경보였다.

· 者明春河。 前司籍、 母前思性司书理、 赛草可切对、 李星也非由

에니에라면 : 1만한 쓰레지만, 쓰레지만소약, 비용된답역
 산편한 쓰레지 수저 : 세찬한지나 , 부분성 : 법으로 .

有对意为难,

621

含义在非 风热场 特別 利品 音片表数 "田塘江 香香堆 丁金、等 计条件 范州 植在花叶花山

E-tux un som ff

4 E E H 1000; 4 ..

40 4144

52 SUG.

S. MUGA.

120 HO 서울 영남구 역원통 700-01/ 변화(00)MI-MAN 변송(00)MI-6012 영영 석축원 0.0 4 8949 0 4 4 | note 664 mg 4. 4959 110 4 1 424 0 4 1 442 0 + 7 | 444 0.0 4 : 050 04 8 744 17 4 d : 448 G.8846 | 3,98,986 G10-000 (000-01) -0 M 1, 375, 000 T12, 500 812,100 用用中令书 Will C, 513,000 1, 888, 000 887,000 ES. 1,481,000 863,000 180,000 HE M. M. (805-1) * 200,000 85,400 184, 600 8, 877, 000 3,310,900 3,184,366

다만, 화면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여

성. 그중에서도 주부들로 설정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현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1990년대 당

시의 성역할에 대한 일반화된 통념이 엿보이기도

국내홍보영화〈쓰레기 종량제 그후〉 제작 완료 보고 BA0794222



주부들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가정 쓰레기를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부들의 노력으로 쓰레기 종량제는 실시된 지 얼마 안 돼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쓰레기양의 감소와 함께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방법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자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하여 규격 봉 4 00:43 투에 넣는 일이 귀찮고 힘들었는데 계속하니 쓰레기양도 줄고 주위 환경도 깨끗해졌어요. 버리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무심코 버리던 것도 고쳐 쓰거나 이웃 간에 교환하여 근검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살때도 포장이 많거나 쓰레기가 많이나오는 물건을 빼게 되었어요.





02:26 ▶ 이러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는 종량제는 종이와 병, 캔 등 다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을 하게 되고 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만을 규격 봉투에 넣어 일정한 장소에 배출함으로 써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 쓰레기는 **◆ 02:47**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고,

연탄재나 재활용품은 규격 봉투에 담지 않더라도 수거일에 내놓으면 됩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같 은 것은 수수료를 내고 일정한 날에 내놓으면 됩 니다.





종량제 실시 후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 4 05:30 은 1.5킬로그램(kg)에서 1킬로그램(kg)으로 약 40퍼센트(%)의 감소를 보였으며 연간 870만 톤 (t)의 감소로 매립지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쓰레기 처리 비용 4천억 원이 감소되고 이는 정부 환경관련 예산인 4,600억 원과 맞먹습니다.

맑은 물과 푸른 숲.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 려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의지는 빠 른 종량제 정착으로 더욱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습 니다.







다시 뛰자! 코리아!



QR 찍고 영화보기



1997년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로 부터 구제금융을 지원을 받는 한국의 실 정과 원인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 조한다.

감독 🊝 강명준

생산기관

국립영화 제작소 관리번호 🔍 CEN0005108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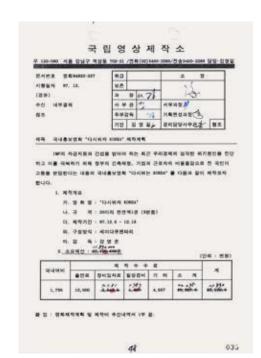
재생시간 🕑 9분 41초

이 작품은 1997년 11월 발생한 'IMF 사태'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목적 하에, 세미다큐멘터리 구성 방식을 취하면 서 단편적 서사를 지닌 극적 연출을 가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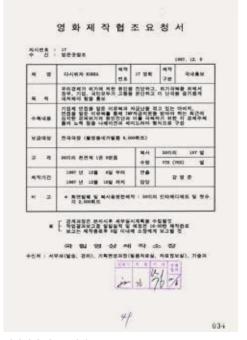
단편극의 내용은 20대 청년 '유복'(이상인 분)이 'IMF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망각하고 이전 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 끼지도 못하다가 아버지(최낙천 분) 회사의 자금 난과 자신의 대기업 면접시험 탈락을 경험한 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영화는 여러 자료 화면들과 남성 아 나운서의 음성으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적 영상 을 삽입함으로써, IMF 사태의 발생 원인과 현실 적 여파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근검절약 실천 하여 우리 경제 살립시다."라는 구호 풍의 문장을 제시하며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전까지의 문화영화 가운데는 절약 및 저 축 생활을 권하거나 독려하는 작품들이 일정 부



〈다시뛰자 코리아〉 제작계획 CA0026487



영화제작 협조요청서 CA0026487

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건국 이후 최 대의 경제적 위기'로 일컬어지는 IMF 사태를 통 과하며 보다 더 당대의 현실을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는 방식의 (다시 뛰자! 코리아!)와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경향은 (IMF는 지금부터)(1998). (위 기를 기회로〉(1998) 등을 통해 1998년으로도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1990년대 말 당시의 경 제적 상황과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

00:15

- 유복 IMF란 무엇이냐? 에… 그러니까 인터내 셔널 머니 어…
- 여자1 유복 씨!
- 유복 쉿! 알아 알아. 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두 군데나 합격한 몸이야. 저스트 모먼트
- 여자1 아직 면접시험 남았네요.
- 유복 아, 분명히 아는데, 인터내셔널 머니, 음··
- 여자1 왜 그래?
- 유복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놨거든, 여보세요. 어 봉수야, 웬일이야. 나이트클럽? 좋지. 언제? 투나잇? 오케이. 그래 이따 보자.
- 여자1 유복 씨!
- 유복 아, 짜식들. 내가 빠지면 물이 안 좋대요. 물이, 아 오늘 카드에 불 좀 나겠는데.
- 여자1 어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나 알아? 기업들은 다 망하고 사 람들은 쫓겨나고 물가는 오르고.
- 유복 근데?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신용이 떨어지고 극 ◀ 01:54 심한 외화 부족 현상으로 IMF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내실 있는 경영 전략을 세우지 않고, 외형만 키우는 데 급급했던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 소득 수준 만 불, 소비 수준 삼만 불. 마치 선진국이라도 된 듯한 착 각에 빠져 비싼 외제품만 선호하는 과소비.



02:43

유복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아버지 늦었구나.

유복 어.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밤 늦게?

아버지 어, 그냥 왔다.

유복 아, 나 내일 면접 본다고 용돈 주러 오셨구 나. 그죠? 맞죠?

영화 해설

아버지 아버지랑 술이나 한잔 하자.





아버지 아주머니!

여자2 아, 예. 잠깐만요. 아저씨도 짤렸수?

아버지 예.

여자2 아이구, 나야 술 잘 팔려서 좋긴 하지만 식 구들은 어떡하누. 쯧쯧쯧…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 04:22 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IMF 시대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원이 감축되고 이 에 따라 실업자가 백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 부담이 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며 시중에 돈이 부 족해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 입니다. 또한 환율 인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것 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더 무거워질 것입 니다.





아버지 괜찮아, 사내자식이 그깟 걸로 기가 죽 다니!

유복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기는.

유복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그래, 유복아. 우리 내기 한 가지 할까?

유복 내기요?

아버지 그래, 누가 먼저 일어서나!

유복 좋아요.

아버지 좋지!

유복 아버지, 그럼 우리 서로 힘내자는 뜻으로 파이팅 한 번 해요.

아버지 그래!

유복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버지 파이팅!



영화 해설

